



고대안암병원뉴스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NEWS

발행인 | 김창덕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 전화 | 1577-0083 · Fax | 02)920-5770 · 홈페이지 | http://anam.kumc.or.kr

2010
October

10

발행 | 10월 15일 · 월간 · No.43

고대병원,

3D 로봇수술

무료 교육시대 열었다!



- 고대 안암병원, '아시아 로봇수술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센터' 공식 개소
- 실제 로봇수술상황과 같은 3차원 입체영상으로 시뮬레이션 교육
- 국내외 의대생, 전공의, 전문의 대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3년전 국내 선도적으로 로봇수술을 도입해 개소한 고려대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가 이제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 의료진에게 로봇수술을 보급하는 교육의 요람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제 로봇수술을 배우기 위해 비싼 돈을 지불하고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어졌다.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3D 로봇수술 교육을 시작해 의학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고려대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가 10월 7일 오후 2시 병원 8층 대강당에서 '아시아 로봇수술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센터(Asian Robotic Surgery Simulation Training Center)' 공식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대상자는 국내외 의대생과 전공의, 전문의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3D 교육만 받을 경우,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모두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다빈치 로봇 수술 시뮬레이팅 트레이너(제작:美 MIMIC社)의 최신 업그레이드 모델을 추가로 도입하고 정식 센터 개소와 함께 비뇨기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각 임상과별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안암병원이 처음 로봇수술을 도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로봇수술을 배우기 위해 의료진들이 외국을 찾아다녀야만 했지만 불과 몇 년만에 이제는 미국, 유럽 등 서방 선진국에 포진되어 있는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을 비롯해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의료진이 자문을 구하고 직접 안암병원을 찾고 있다.

로봇수술센터장 천준 교수는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교육생의 사전 로봇수술기법에 대한 이해도 및 수술술기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작사인 미믹사와 공동으로 3D 직장암수술 연습모듈을 개발중인 대장항문외과 김신한 교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매우 높고 지속적인 개발과 영역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덕 안암병원장은 "본원 로봇수술센터는 국제적으로 정평이 난 대표 의료진들을 역량만을 놓고 본다면 세계 어디 내놔도 뒤

지지 않는다. 더욱 큰 성과와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암병원은 로봇수술센터는 이제, 세계적인 센터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냄과 동시에 교육을 통한 이익창출이 아닌 순수한 의학발전을 위해 전세계 의료진에게 교육과정을 무료로 진행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의료계에서도 매우 뜻 깊게 받아들여 지고 있다. 한편, 국내에 손에 꼽을 정도였던 로봇수술장비가 지금은 안암병원을 비롯한 많은 병원들에 도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상분야에 접목되어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선도적 역량을 바탕으로 여러 국내 의료기관들이 상호간의 협조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이 로봇수술의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천준 센터장은 세계 제1의 로봇수술 교육기관이자 수술센터인 '美 플로리다병원 세계로봇수술연구소(Florida Hospital Global Robotics Institute, 이하 GRI)'에 명예교수(International Honorary Faculty) 및 명예자문위원(Honorary Adviser)으로 임용된 바 있으며, 국소성 전립선암의 완전 암제거율이 95%를 상회하는 등 전립선암 로봇수술의 술기, 수술 결과, 암치료율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대장항문외과 김신한 교수는 메이요 클리닉에 이어 클리블랜드클리닉에 직장암 로봇수술을 생중계 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초빙교수로 맹 활약 하며 대장-직장암 환자의 로봇수술을 직접 집도하고, 외과 조교수(Junior Staff)와 전공의의 교육·수련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수술용 로봇 다빈치의 개발, 판매 및 수술교육 등을 담당하는 인튜이티브사가 2008년 5월 김 교수를 모델로 직장암 로봇수술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로봇수술법의 세계표준으로 공인했다.



거점대학이여야
이학발전기금기부

10.08.02	임국환	₩ 10,000,000
10.08.03	양재철	₩ 1,500,000
10.08.16	박중진	₩ 7,000,000
10.09.03	김영훈	₩ 10,000,000
10.09.06	뉴케어메디컬시스템	₩ 13,500,000
10.09.06	(주)맥스바이오텍	₩ 10,200,000
10.09.07	의과대학 38회 동창회	₩ 5,000,000
10.09.08	용환석	₩ 5,000,000
10.09.09	최재기	₩ 10,000,000

10.09.10	고영휘	₩ 5,000,000
10.09.13	윤종태	₩ 12,000,000
10.09.17	박상원	₩ 10,000,000
10.09.24	장성훈,이순희	₩ 100,000,000
10.10.04	성세의료재단(안병문)	₩ 1,146,825
10.10.05	채양석	₩ 7,000,000
10.10.07	김재선(학부모)	₩ 10,000,000
10.10.12	이수월	₩ 10,000,000
10.10.15	최정호	₩ 3,000,000



JCI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한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 기간 : 2010년 8월 2일~10월 15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 1면에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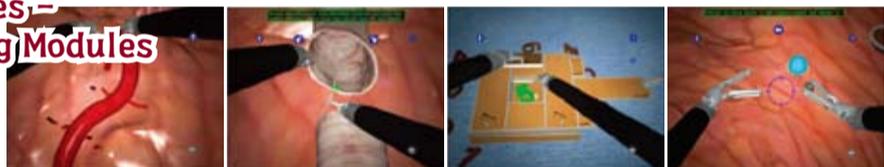
[참고자료]

가장 로봇수술 교육장비인 '다빈치 로봇 수술 시뮬레이팅 트레이너(제작:美 MIMIC社)'는 다빈치와 동일한 조작과 실감나는 화면으로 실제 로봇수술과 동일한 실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용 도구다. 특히 다빈치 시뮬레이팅 트레이너는 개인별 연습데이터 수집과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고, 로봇팔을 이용한 물체이동과 같은 간단한 움직임부터 절개, 봉합 등의 실제 수술상황까지 연습할 수 있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 다빈치는 현재 전세계에 약 1,200대가 보급됐지만 별도의 실습장비가 없이 이를 배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교육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시뮬레이팅 장비를 적극적으로 개발/도입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고대 안암병원이 최초로 이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첨단 3D기법을 이용해 실제와 동일한 실습이 가능해 로봇수술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대 안암병원이 도입한 다빈치 시뮬레이팅 트레이너는 3D시뮬레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시술대상과 로봇팔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부품의 교체 없이 계속 사용이 가능해져 로봇 수술을 배우고자 하는 전문의나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에게까지 쉽고 저렴하게 많은 배움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mples - Training Modules



다빈치 로봇수술 트레이너는 3D시뮬레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시술시와 매우 유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의무부총장 손창성입니다.

로봇트레이닝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성원과 그동안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세계 로봇수술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로봇수술은 최근 수년간 미국, 유럽 등 서방 선진국에서 널리 시행되며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국내에 선도적으로 로봇수술법을 도입한 고려대 로봇수술센터는 다양한 임상분야에 접목함과 동시에 놀라운 수술성과로 매우 짧은 시간내 세계적인 센터로 거듭난 고려대의료원을 대표하는 자랑스런 센터중에 하나입니다. 로봇수술의 세계적인 대가 천준 교수님과 김선한 교수님 등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의술을 자랑하는 여러 교수님들께서 비뇨기암, 대장-직장암, 갑상선암, 방광암, 위암 등 다양한 임상분야에서 활발히 로봇수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상급의 로봇수술을 자랑하는 고려대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 의료진이 이제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수술법을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에게 직접 전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각국에서 초청이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의료원도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바탕으로 로봇수술센터와 로봇트레이닝센터가 세계로봇수술의 아시아 허브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로봇수술의 발전을 주도하며 최첨단 의료를 실현할 고려대의료원의 미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로봇트레이닝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손창성

“세계적 임상시험 역량을 뽐 내겠다!”

[특집]

당찬 포부와 야무진 결실 기대

‘임상시험 국제심포지엄’ 개최한 고려대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



고려대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는 2009년 4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하는 국가지정 임상시험센터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후, 1년여의 공사를 거쳐 520평 규모의 대규모 임상시험 전용 연구공간을 확보해 차별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가지정 임상시험센터로의 선정을 통해 안암병원은 임상시험수준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로 삼고, 순환기계·혈액계통·환경대사계의 임상시험 등을 특화시킴으로써 다른 기관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를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런 전략에 맞춰 우수한 기관과의 학술적, 기술적 교류를 모색하고 다양한 성과를 통해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는 2009년 4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하는 국가지정 임상시험센터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후, 1년여의 공사를 거쳐 520평 규모의 대규모 임상시험 전용 연구공간을 확보해 차별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가지정 임상시험센터로의 선정을 통해 안암병원은 임상시험수준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로 삼고, 순환기계·혈액계통·환경대사계의 임상시험 등을 특화시킴으로써 다른 기관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를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런 전략에 맞춰 우수한 기관과의 학술적, 기술적 교류를 모색하고 다양한 성과를 통해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임상시험 국제심포지엄’이 안암병원에서 개최됐다. 임상시험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심포지엄에는 하버드 브리검 여성병원의 고든 윌리엄스 교수와 고려대 안암병원 김병수 교수, 삼성서울병원 김호중 교수 등이 임상시험과 관계된 다채로운 연제들을 발표했다. 이날 고려대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 인광호 센터장은 “임상시험과 관련된 최신 경향을 공동으로 살펴보는 오늘 심포지엄에서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임상시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안암병원은 국제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더 나은 기술과 체계적인 연구방법론들을 습득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국내 임상시험연구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손창성 의무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안암병원은 지난해 국가지정임상시험센터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고, 병원의 경영지표 또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병원만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충분한 에너지가 비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임상시험센터가 본격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활발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안암병원 심혈관센터 및 수술실이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상시험센터의 성장을 기원했다.

“유방암 함께 극복하니, 고통 절반으로 줄어요!”

[포커스 IN 1]

유방암 환우모임 5주년 맞은 ‘고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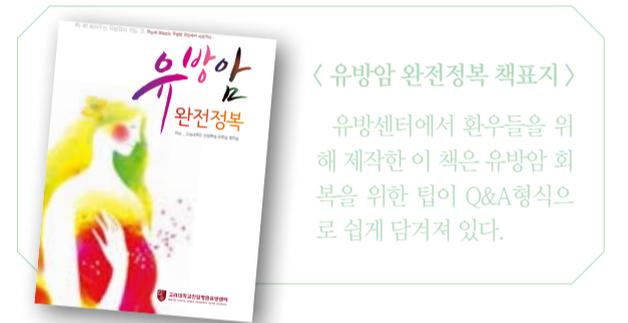
고려대 안암병원 유방암 환우회(이하 고유회)가 10월 15일로 환우모임 5주년을 맞이했다. 고유회는 유방암환우들의 쾌유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되어 유방암 치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환우회는 유방암 수술 후 같은 처지의 환우들끼리 아픔을 나누면서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정보도 나누고 위로 하면서 기쁜일 슬픈일을 함께 해오고 있다. 동병상련의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환우회는 가족에게도 못 다한 말을 서로 의논하면서 한 가족처럼 지낸다. 고유회 관점론 회장은 “나만의 아픔만인줄만 알았는데, 이곳 고유회에서 용기를 얻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새 삶을 살고 있는 고유회 회원들 간의 화합을 우선으로 고유회를 이끌고 있는데 회원들이 큰 힘을 얻고 있어 더 없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고유회 김희영 환우는 “여성의 상징인 한쪽 가슴을 상실하여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때도 있었지만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서로를 보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암병원 안암병원 유방센터는 지난, 2008년 4월에 개소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환자들이 편리하게 진료, 수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환우회를 통해 환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는 등 통합적 치료시스템을 구축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안암병원 유방센터와 고유회는 지난 10월 15일(금) 오후 3시 8층 대회의실에서 ‘유방암 환우모임 5주년 기념행사 및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은, ‘고유회’(고려대 안암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창립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진료실에서 못 다한 의료진의 따뜻한 조언을 담은 ‘유방암 완전정복’ 출판

기념회와 더불어, 유방암 면역치료 바로알자(중앙혈액내과 박경화 교수), 유방암 대체의학의 허와 실(유방센터 이은숙 교수) 등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실시해 참석자 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이날 참석자 들에게는 ‘유방암 완전정복’ 책자를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유방센터는 지난 8월 26일 저녁 7시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비바보체 (VIVA VOCE)’를 초청해 ‘핑크여우’ 음악회를 개최했다. 1,000여석의 객석을 가득 채우고 성황리에 마친 이번 공연은 유방암 환우회원을 비롯해, 의사, 간호사와 초청인사 등이 참석해 유방암 환우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안암병원 유방센터는 2008년 4월에 개소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환자들이 편리하게 진료, 수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환우회를 통해 환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는 등 통합적 치료시스템을 구축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 유방암 완전정복 책표지 〉

유방센터에서 환우들을 위해 제작한 이 책은 유방암 회복을 위한 팁이 Q&A형식으로 쉽게 담겨져 있다.



▶ 지난해 9월 7일 개최된 고유회 걷기대회

▶ 올해 8월 26일 핑크여우음악회에서 함께한 고유회 회원들과 비바보체, 유방센터 의료진

▶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유방 배정원센터장, 세번째 이은숙교수

“이식술 제대로 배워 갑니다”

[포커스 IN 2]

카자흐스탄 의료진 안암병원에서 연수마치고 고국으로 출국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로 이식 관련 의술을 배우기 위해 찾은 카자흐스탄 국립응급의료센터 의료진 3인이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3주간의 연수를 모두 마치고 고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모두 외과와 신장 전문의들로 연수기간 중 본원 이식혈관외과 박관태 교수를 비롯한 전문 이식팀으로부터 장기이식관련법과 이식 절차와 메뉴얼 등 관련 정보를 습득했다. 연수를 마친 신장 전문의 오른굴 박사는 “정부정책에 의해 카자흐스탄의 장기이식 관련 발전을 이루고자 의술이 뛰어난 한국의 고대병원을 찾게 됐다”면서, “와서보니 세계적인 의료인프라와 의술을 실감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고국으로 돌

아가 장기적출과정 도입, 기증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자국의 의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오는 12월 안암병원 박관태 교수를 비롯한 장기이식센터 의료진을 초청해 수술과 강의를 부탁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엔 콩고의사 4명이 10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바 있다.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산부인과 의사들로 구성된 콩고 의료진은 WHO 사무총장을 지낸 고 이종욱 님의 이름을 딴 '이종욱 펠로십 프로그램(저 개발국 의료인 양성 프로그램)'에 참가해 한국의 치료술기를 배워갔다.

똑똑한 인재, 병원에서 키운다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의 대표적인 사내 교육과정인 호의아카데미가 9월 15일 안암병원 중회의실에서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37명의 교직원들이 수강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기존 의료정책 및 의료마케팅 분야 뿐만 아니라 리더십, 코칭, 조직문화, 스토리텔링 등 사회문화 분야로 강의 폭을 넓혀 이루어지며, '개인적 조직의 성공전략'을 주제로 11월 24일 수료식까지 총 12차례 교육이 진행된다. 오유환 안암병원 교육수련위원장은 "각 부서에서 근무를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듣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교육 최종 수료까지 자기발전과 학습에 대한 열정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호의아카데미는 교직원들의 직무역량 및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강형식으로 운영하는 사내 교육프로그램으로, 매년 자발적 신청자를 접수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高大법대 교우, 모교의료원에 1억원 쾌척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장성훈(51세, 77학번) 교우가 10월 1일 오전 10시에 고대 총장실에서 '의학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고려대 이기수 총장, 손창성 의무부총장, 서성옥 의대학장, 정진택 대외협력처장, 이상학 의무기획처장, 이해원 의무교학처장장 장성훈 교우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손창성 고대 의무부

총장은 "모교 의료원을 위한 장성훈 교우의 사랑이 담긴 기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의료인재를 배출하고 선진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소중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장성훈 교우는 "고려대의료원과 의대의 큰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평소 모교 병원을 위해 기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번에 그 생각을 실천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큰 발전을 이루는 고려대의료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기부의 취지를 말했다. 한편, 장성훈·이순희 부부는 지난 2005년에도 2천만원의 '의학발전기금'을 기부한바 있다. 📌

간호부 외래 전직원 '한마음 문화행사' 진행



간호부는 외래부서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9월 30일 7시 성신여대 CGV 영화관에서 '한마음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간호부 외래 친절향상위원회가 주관하여 간호사, 조무사 및 업무원을 포함한 외래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저녁을 함께 먹은 후, 영화관람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근무 중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약 1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사에 참석한 한 업무원은 "근무 끝나고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한 공간에서 오붓하게 대화를 나누며 햄버거도 먹고 재미있는 영화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어 새롭고, 직종 구분 없이 외래 전 직원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암병원 간호부 외래 친절향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내부고객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외부고객에게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암병원 간호부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 1004 DAY 설명의 날 행사 개최



안암병원 간호부(부장 이은숙)는 10월 4일 (월) 3층 로비에서 '1004 DAY 설명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매년 10월 4일을 천사데이로 기념하여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비만도 무료검진 및 관절에 관한 건강 상담을 통해 내원고객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제공하였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래 간호사들의 환한 미소를 담은 미소천사 사진전을 함께 진행하였다. 이

번 행사는 우리병원을 사랑하고 이용해주시는 내원객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NCSI를 대비하여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잘하는 병원임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취지에서 진행하였으며, 약 470여명의 환자 및 보호자가 참가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건강 상담을 마친 한 보호자는 "어머님과 함께 병원에 들렀다 마침 기회가 되어 무료검진도 받고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상담까지 친절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암병원 간호부는 앞으로 매년 1004 day에 맞추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병을 치료하는 3차 예방뿐만 아니라 1, 2차 예방을 제공함으로써 미래고객 유치 및 지역사회 건강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학부모회, 의대생 5명에게 장학금 전달



고려대 의과대학(학장 서성옥)은 9월 9일 오후 학장부속실에서 선배와 학부모가 기탁한 장학금을 의대생들에게 전달했다. 장학금을 수혜받는 의대생들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로 유효선(의예2), 신동협(의학3), 정의수(의학4), 심정환(의학4), 하늘(의학2) 총 5명이다. 의대 38회 졸업생들과 학부모

회는 각각 2005년 2학기부터 매학기 5백만원씩 기탁해 의대생 2명씩 총 4명을 장학생으로 선정해 한 학생당 2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04년 김영근(33회, 성형외과), 이현숙(34회, 마취과) 부부가 1억 5천만원을 기탁해 조성된 근현장학금은 선정된 장학생에게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서성옥 의대학장은 "재학중인 학생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신 교우분들과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을 통해 배출된 많은 인재들이 장차 의료계를 대표할 큰 재목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비뇨기과 김제중 교수 주관으로, '세계 성의학회' 개최



제 14회 세계 성의학회 (14th World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Sexual Medicine)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기과 김제중(金濟鍾, 56, 사진) 교수 주관으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됐다. 세계 성의학회는 매년 개최되는 남성과학 분야 최대의 대규모 학술회의로, 국내에서는 1989년과 2007년에 아시아-태평양 성의학회(Asia-Pacific Society of Sexual Medicine: APSSM)가 개최된 적은 있으나, 전 세계 규모의 성의학회 행사가 국내의료진의 주관하에 진행되

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회장 및 조직위원장(Chairman ISSM 2010 Organizing Committee)을 맡은 김제중 교수는 국내 남성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로, 그간 국내외에서 거둔 수많은 학술적 업적과 임상능력을 바탕으로 2008년 본 행사의 조직위원장에 선임된 바 있다. 금번의 행사는 역대 최대의 규모로 연인원 1,000명 이상의 성의학 관련 분야의 학자들이 한곳에 모였다. 조직위원장인 김제중 교수는 "본 행사는 국내에서 독자 생산된 발기부전 치료제를 포함하여 국내외의 남성과학분야의 저변과 탁월한 학술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2년간 준비한 금번 행사를 통해 향후 남성과학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병원소식

한복 입은 친절리더 추석인사



안암병원 친절리더들이 9월 20일 오전 추석을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병원 로비에서 내원객 및 교직원들에게 곱게 빚은 송편을 나누고 덕담을 건네며 한가위 명절인사를 전했다. 명절연휴를 앞두고 출근한 내원객들과 교직원들은 친절리더들의 깜짝 한가위 인사에 지으며 화답했다. 정광운 진료부원장과 권병창 경영관리실장, 이은숙 간

호부장도 친절리더들을 격려하고 함께 내원객과 교직원들에게 송편을 나누며 한가위인사를 건넸다. 한 교직원은 “이번 추석에는 근무라서 교향에 가질 못해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니 아침부터 명절기분도 나고 출근길이 즐거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안암병원 친절리더는 8월 26일 행정 및 진료부서 등 각 부서간의 추천을 받아 총 3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친절리더 4기는 초빙 외부 전문강사와 원내 친절강사가 총 출동하는 집중교육을 받는다. 11월 열릴 최종 워크숍을 통해 교육수료가 완료되며 기존 친절리더들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

안암 교직원들 끝전모아 사랑실천



안암병원은 9월 16일 오후 3시 ‘대한노인회 성북지회’를 방문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안암병원 교직원들의 동참으로 진행된 ‘사랑의 끝전모금’을 통한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노인 휴식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노인복지실천을 담당하는 ‘대한노인회 성북지회’에 라면 100박스(165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안암병원은 매

달 500여명의 교직원들이 끝전(백원단위 절삭)모금에 동참하고 있으며,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배석환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장은 “점점 힘들어 가는 현실속에도 이웃들의 온정의 손길은 우리 노인들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한편, 안암병원은 교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끝전모금을 통해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한 아이들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문화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불우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사랑실천 행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

간호부, ‘2010년 임상간호연구논문 중간 발표회’ 실시



간호부는 9월 29일 중회의실에서 ‘2010년 임상간호연구논문 중간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4월부터 병동 및 특수부서에서 진행해온 임상간호연구 논문의 발표를 통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완성도 높은 연구를 위해 서로 조언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부서별 논문의 주제는 당뇨병을 동반한 만성 신부전 환자의 당뇨병 교육이 지식과 자가 관리수행에 미치는 효과(84명동), 기관삽관 Tube에 첨부되어있는 Subglottic secretion drainage관에 적용한 간

호관리 프로토콜 효과(MICU) 등이며, 총 11부서에서 2010년 임상간호연구를 진행해올 연말 완성을 목표로 하여 임상간호연구를 진행 중이다. 발표회에 참가한 한 간호사는 “오늘 조언해주신 덕분에 우리 병동 연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연구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은숙 간호부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임상간호의 발전 및 환자간호를 위해 연구논문을 준비하는 모습이 매우 뿌듯하다. 끝까지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간호부는 안암병원이 국제적인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문화된 간호와 의료의 질적수준 향상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환자를 위한 친절서비스는 물론 간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비뇨기과 고영휘 임상교수 논문, 표지 논문으로 연속 게재



고려대학교 비뇨기과 학교실(주임교수: 이정구 교수)의 고영휘 임상교수의 논문이 2010년 국내외 비뇨기과 권위지에 잇따라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아시아 최고의 비뇨기과학 SCI 등재 논문인 Asian Journal of Andrology는 고영휘 임상교수가 제출하여 출판예정인 논문 'The biochemical efficacy of primary cryoablation combined with prolonged total androgen suppression compared with radiotherapy on high-risk prostate cancer: a 3-year pilot study'을 논문의 학문적 최고우수성을 재차 인정하여 최근호인 2010년 11월호의 표지논문으로 공식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 논문은 제3세대

형 냉동수술 요법과 2년 이상의 장기간 호르몬 요법의 병용치료법의 효용성을 보고한 세계 최초의 논문으로, 비뇨기과학교실 공동 연구팀은 본 논문에서 이 방법이 현재의 표준치료로 인정받고 있는 방사선치료와의 비교에서 동등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부작용은 크게 줄였음을 보고했다. 한편, 고영휘 임상교수의 또 다른 논문인 'Efficacy of Parenchymal Compression in Open Partial Nephrectomies: A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Vascular Clamping'은 부분신적출술에서 기존의 수술법을 개량한 신실질 압박방법의 장점을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면서 그 장점을 밝힌 논문으로, 이 논문은 국내 비뇨기과학회 최고의 권위지인 Korean Journal of Urology (대한비뇨기과학회 공식 영문학술지) 2010년 1월호의 표지논문으로 선정, 게재된 바 있다. 📌

간호부 김미영 간호사 '제3회 서울간호학술상' 우수상 수상



안암병원 김미영 간호사(치과외과)가 9월 30일 서울시 간호사회에서 주최하는 ‘제3회 서울간호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간호학술대회’는 간호사들의 학업정진을 격려하여 간호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장으로 매년 그 해에 발간되는 석·박사 학위논문 중 우수한 논문 10편 정도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발표

하는 자리를 갖는 행사이다. 김미영 간호사는 「클라리세이지 향흡입이 치주염환자의 통증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라는 주제의 학위논문을 포스터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발표된 포스터의 내용은 클라리세이지 오일을 이용하여 향흡입을 한 치주염환자의 통증정도가 비흡입 대조군의 통증정도에 비해 낮아 향흡입을 통한 통증 및 스트레스 완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치주염 발병 추세와 관련된 간호중재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간단하면서도 효과 높은 간호중재로 임상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의학교육학교실, 개소 10주년 및 의료인문학 심포지움 성료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주임교수 김병수)에서 10월 7일 오후 1시 30분 고대 안암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개소 10주년 기념식 및 제3회 의료인문학 심포지움’이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로 3주년을 맞은 의학교육학교실 의료인문학 심포지움은 ‘인간으로서의 의사, 인간으로서의 환자’를 주제로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사 전

문직의 정체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병수 교수는 “동일한 개인 안에서 발생하는 자연인으로서의 욕구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욕망의 충돌 현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함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의사 전문직의 고민을 짚어보고, 추구하여야 할 가치를 논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대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개소 10주년 기념식에는 이윤성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서성욱 고려대 의과대학장, 임기영 한국의학교육회 의료인문학 연구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실 10주년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

친절리더 칼럼

세심한 배려는 진한 여운을 남긴다

집으로 향하는 길 대형 전광판에 낫 익은 콘서트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이문세의 '더 베스트' 콘서트.

불현듯 지난해 이맘때 보았던 이문세의 '붉은 노을' 콘서트 생각이 났다.

당시 콘서트는 40인조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귀에 익은 선율과 51살의 적지 않은 나이에도 열정적인 무대 매너를 보여준 가수의 카리스마로 감동 그 자체였다. 하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여운이 남는 감동은 콘서트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보여준 '세심한 배려' 이다. 강한 핸드폰 진동음에 집에 있는 아이들의 전화려니 생각하며 확인하는 순간, 거기엔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가을밤에 만나 반기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또 만날 때까지 건강히// 20090912 이문세." 라고 공연을 보러 온 5000명 관객에게 동시에 보낸 단체 문자인데 당사자인 이문세가 아닌 공연 주최측에서 보낸 의례적인 인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상치 못한 세심한 배려에 더욱 친근함을 느끼며 여운을 안겨줬던 기억이 난다.

몇 일전 당시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5살짜리 막내 아들 아토피가 재발하여 동네 소아과를 찾았을 때다. 그 날도 어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진료를 받으러 온 아이와 부모들로 복새통을 이루며 봄비는데 진료를 보러 온 아이들은 대부분 스스로 거동을 하는 것을 봐서는 상태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듯 해 보였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열이 많이나 축 처진 체 내 품에 안겨 힘겨워 했다. 이를 알았는지 간호사는 중간 중간 다가와 아이 상태를 체크하더니, 앞에 몇 사람이 남았는지를 친절히 알려 주며 그런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앞에 몇 사람이 남았는지도 전광판에 순서가 나와 있어 이미 알고 있는데, 직접 얘기해주시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며, 비록 순서를 바꿔주지는 않았지만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다.

나 역시 외래간호사로 병원에서 매일 똑같은 상황에 환자와 보호자를 대하고 있지만, 막상보호자의 입장에서 이 같은 대우를 받으니 많은 반성이 되었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작은 배려가 짙은 여운을 안겨 주는 감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다.

헬스케어 전문가 프레드 리는 그의 저서 '디즈니병원의 서비스 리더십' 에서 더 나은 서비스의 4가지 영역 중 '안전' 다음으로 우선순위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이 '배려' 다. 병원이 고객들로부터 더 높은 만족도와 충성심을 얻으려면 '효율' 보다 '배려' 를 더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객에 대한 의례적인 중년 가수의 스캠 문자와 어느 소아병원 간호사의 품에 밴 일상적인 행동이라도 그 속에 상대방을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가 더해진다면, 명화와 같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진한 여운을 안겨 주는 커다란 감동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이 가을 NCSI를 대비하는 우리의 기본자세도 단풍이 빨갛게 물들 듯 고객에게 베푸는 세심한 배려심의 실천으로 물들이기를 기대해 본다. 

글 | 비뇨기과 외래 간호사 이윤희



문화소개

tick, tick... BOOM! 뮤지컬 **틱, 틱...붐!** 서른 삼, 희망을 꿈꾸다




"젊은이의 삶과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을 그린 감동적인 휴먼 뮤지컬!

2010 뮤지컬 <틱, 틱...붐!> 한국공연
깊이와 개성이 공존하는 특별한 무대를 완성하는 연출 이항나와 두 말이 필요 없는 한국 최고의 음악감독 박갈린 등 실력 있는 스태프들 참여!

2010년 뮤지컬<틱, 틱...붐!>은 연극배우 겸 연출가인 이항나가 연출이 맡았다. 연극에 뿌리를 둔 이항나 연출은 <리틀샵 오브 호러스>, <메노포즈>, <쑤마텔라>, <냉정과 열정사이>를 통해 개성 넘치는 공연을 선보였다. 뮤지컬 <틱, 틱...붐!>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젊은 열정과 실험정신을 제대로 살려 지금까지 한국에서 공연되었던 <틱, 틱...붐!>의 무대와는 차별화를 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항나 연출과 더불어 뮤지컬의 여성퍼포머를 보여주고 있는 박갈린이 이 작품의 음악수퍼바이저로 함께한다. 박갈린은 2005년, 2007년 뮤지컬 <틱, 틱...붐!> 뿐만 아니라 뮤지컬 <렌트>의 음악감독을 맡으며 이 작품들의 원작자 '조나단 라슨' 박사라고 불릴 정도로 그의 작품을 연구했다. 조나단 라슨 작품을 처음 만나는 이항나 연출의 색다른 시선과, 오랜 시간 그의 작품을 함께 했던 박갈린 음악감독의 깊이 있는 시선이 함께 만들어낼 2010 뮤지컬 <틱, 틱...붐!>. 바로 이 점이 이번 공연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 

스태프 : 원작 · 음악/ 조나단 라슨, 연출/ 이항나, 음악수퍼바이저/ 박갈린, 음악감독/ 오민영, 무대디자인/ 권용, 조명디자인/ 최관열, 음향디자인/ 김기영, 분장디자인/ 김유선, 조연출/ 이지영

공연장소 :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공연기간 : 2010.9.30.-2010.11.7
티켓가격 : R석 50,000원 S석 40,000원
주 최 : 충무아트홀, 신시컴퍼니
출 연 : 강필석, 신성록, 윤공주, 이주광
티켓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기고]

영화 '아저씨'와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

박관태 고대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 교수

9월 13일자 조선일보 보도

박관태 고대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 교수 관객 600만명을 앞두고 있다는 영화 '아저씨'. 요즘 유행하는 말로 '초콜릿 복부 근육' 을 가진 전직 특수요원(원빈)이 범죄 조직에 납치된 불쌍한 소녀를 구하려고 유혈 남자극을 벌이는 이야기이다. 범죄 조직은 사람을 납치해 산 채로 장기를 빼내 판다. 외과의사로서 평소애 협한 상황을 수없이 부딪히는 필자에게도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았다. 이런 게 모두 영화에선 흥행 요소라고 하지만 영화에서 그려지는 '탈법' 혹은 '무법' 의 장기 이식은 실제 우리나라에선 의학적·제도적으로 현실과 전혀 다른 상황이다.

장기 이식은 단순히 혈액형만 맞다고 해서 여기서 떼어 저기애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차 반응, 항체 검사, 조직형 검사 등 수많은 사전 검사를 세밀하게 한다. 그리고 이식받을 사람이 공여자의 장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사람을 납치한 뒤에 이런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장기를 빼낸다. 아무나 납치해서 장기를 꺼내고 마구잡이로 이식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게 의학적 진실이다.

또 영화 속 범죄 조직은 지하실이나 주차장 앰블런스 안에서 장기를 빼내는데, 이것도 가능성은 제로(0)다. 이런 장소에서 장기를 적출하면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100%로, 만일 이렇게 장기를 이식받았다면 온갖 질병에 감염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적출과 이식은 3차 의료기관 이상의 멸균 시설이 돼 있는 종합병원에서만 시행한다.

기본적으로 범죄 조직이 개입한 장기를 이식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의 장기 이식 체계는 2000년 이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모든 관리를 맡는다. 이 관리 체계는 장기를 신속히 이식해야 하는 병원의 의료진이 때로 짜증 낼 정도로 철저하게 진행된다. 기증의 순수성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체크한다. 장기 매매가 의심되면 환자가 아무리 위급해도 장기 이식을 하지 못한다. 하물며 어느 의사가 생사람을 납치해 꺼낸 장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식해 주겠는가?

사실 영화가 워낙 재미있어서 장기이식 전문가인 필자도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이런 결정적인 허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다. 장기이식이 대중화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이 영화로 관객들이 장기 이식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가치관을 가질까 우려된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실제 장기 기증은 평범한 이웃들의 아름답고 거룩한 결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객들이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글 | 장기이식센터 박관태 교수
외래 | 장기이식센터 920-6858



[이부서 이사람]

종양혈액내과 김병수 교수,

조혈모세포 및 면역세포 생산 신기술 특허등록 SCI 표지논문 선정 되기도...

제대혈과 태반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



종양혈액내과 김병수(金秉秀, 48, 사진) 교수팀은 최근(9월 2일), 분만 후 버려지는 인간 태반에서 추출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제대혈 및 골수로부터 조혈모세포 및 면역세포를 증폭 생산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등록했다. 이번 신기술의 가장 큰 의의

는, 분만 후 자연스럽게 채집이 가능한 태반과 제대혈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 기존의 채집량이 적었던 제대혈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데 있다. 또한, 조혈모세포 및 면역세포의 증폭생산을 위한 배양 시 지지세포로 사용되어 온 쥐와 같은 동물세포나 인간 골수세포를 대신할 새로운 지지세포 공급원을 확보한 점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세포배양시 기존과 같이 동물세포를 지지세포로 사용하면, 인간 세포와 동물세포가 같이 배양되기 때문에 생산된 인간세포는 유전자 불안정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김병수 교수는 “인간 골수세포는 채집을 위하여 공여자에게 추가적 시술이 필요하

로 공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특허기술을 사용하면 인간태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공여자에 대한 추가적인 시술 없이 채집 가능하기 때문에 위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며 이번 특허등록의 의의를 밝혔다. 이 특허는 인간 태반으로부터 중간엽줄기세포를 추출하여 정제한 후 이를 지지세포로 하여 인간 제대혈이나 골수로부터 채집한 단핵구를 배양함으로써 조혈모세포이식에 필수적인 ‘CD34+ 조혈모세포’ 및 면역치료의 핵심인 ‘CD14+ 단핵세포’의 생산을 촉진시키는 신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시정연구개발원 신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의 지원 하에 고려대학교 줄기세포연구소에서 진행됐다.

세포치료제 및 다능성 줄기세포 제작에 활용 가능한 원천재료 개발한 업적 인정받아 SCI 표지논문 선정

한편, 김병수 교수는 논문 ‘Stemness evaluation of mesenchymal stem cells from placentas according to developmental stage compared to those from adult bone marrow(발생단계에 따른 인간태반 중간엽줄기세포의 특징분석)’이 우리나라 최고 SCI 의학 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대한의학회 발간) 2010년 10월호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이 논문은 임신 초기의 인간 태반과 분만 후 채집된 인간 태반, 그리고 성인 인간 골수로부터 비롯한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s, 이하 MSCs)의 특징 등을 각각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태반 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 능력이 골수 유래의 중간엽줄기세포 보다 우수하다는 점과, 임신 초기 태반 중간엽줄기세포에는 인간 배아줄기세포에서만 발현되는 전분화능 표지자가 일부 관찰됨을 증명하였다. 태반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란 태반에 풍부히 들어있는 태반줄기세포로 조직재생력과 면역조절능이 뛰어난 특징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근육, 연골질환, 골질환 등의 치료에 활용되는 세포치료제의 원천재료로 사용되는 중간엽줄기세포의 새로운 공급원으로 인간 태반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임신 초기 태반이 전분화능 다능성 줄기세포의 수월한 제작에 활용될 가능성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학계로부터 수준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간 태반은 분만 과정 중에서 산모에 대한 추가적 시술의 위험과 경제적 부담 없이 채집이 가능하다는 측면과 양이 적은 제대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

의학정보

노인에게 다가오기 쉬운 우울증·치매 가족의 사랑과 협력이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은 누구나 우울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노인에게는 특히 가까운 친족, 친구의 죽음이나, 은퇴, 신체노화 등을 통해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우울증과 더불어 노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건망증을 들 수 있다.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건망증이 심하다고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우울증과 치매에 대한 증상과 올바른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노년기우울증...치료시기 놓치는 경우 많아 주의깊은 관찰요망

노년기 우울증은 신체적 증상 및 인지 장애에 의해 가려 모르고 지나가기 쉽다. 따라서,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예가 많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인해 절망에 사로잡혀 지내거나, 퇴행되거나,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 신체질환, 망상, 환각, 자살 등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하게 된다.

우울증의 원인은 유전소인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노년기 우울증의 경우는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유전적 소인이 작용하는 정도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노년기 우울증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취약성과 일생동안의 경험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그 외에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나 생리변화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울증이 시작되거나 악화된다. 생물학적 취약성에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감소, 모노아민 산화효소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으며, 코티졸 등 신경내분비계의 이상도 거론되고 있다.

“우울증은 치매에 비해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어”

노년기 우울증은 노년기에 치매와 함께 가장 흔한 정신장애 중의 하나로 이 양자간에 감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둘은 인지장애, 수면장애, 무감동, 사회적 철퇴 등 임상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서 감별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더욱이 우울증은 치매에 비해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진하거나, 치매를 합병증으로 나타내고 있는 우울증을 발견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 진단에는 주의 깊은 병력청취,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뇌전산화촬영과 자기공명 영상이 진단에 필수적이다.

노년기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을 내과적 질환에 의한 것으로 여기기 쉽다. 가족들도 병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환자가 의도적으로 증상을 보인다고 까지 여기게 된다. 또한, 환자 스스로 우울감을 직접 호소하는 예가 드물다. 하지만, 면담 중에 질문하면, 흥미가 없고 자신의 기분이 옛날 같지 않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불안, 기억력 손상, 신체증상, 초조감, 체중감소, 변비, 건강 염려증적 증상, 히스테리성 행동, 망상 등이 많은 것이 노인 우울증 환자의 주된 특징이다.

노년기 우울증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평가하여 확실한 진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치료에는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전기경련요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정신치료는 인지기능손상이 없거나 극미하고, 지적 능력이 높은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다. 또한, 약물치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반응을 증진시키고 재발을 감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는 역동적 정신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 집단치료, 가족치료 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개개인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

치매...인지기능상실, 일상생활할 수 없는 뇌의 병

치매란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뇌에 발생한 각종 질환으로 인하여 인지 기능을 상실하여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 뇌의 병이고 △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병이며 △ 기억력 이외에 판단하기, 말하기, 알아맞추기, 미리 준비하고 실

천하기 등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이 떨어져 있어 △이로 인해 직장이나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꾸려갈 수 없게된다.

치매와 건망증은 차이를 보면,

기억력이 깜빡하는 것은 건망증의 증상이며, 치매와는 엄연하게 다르다.

건 망 증	치 매
사건의 세세한 부분만을 잊는다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잘 기억)	사건의 광범위한 부분을 잊는다 (사건발생 자체를 잊는 경우도 있다)
귀뜸을 해주면 금방 기억을 한다	귀뜸을 해주어도 기억하지 못한다
대부분 기억력 감소인지하고 메모 등 이용하여 보완하려 노력	본인의 기억력 저하를 모르거나 부인하는 경우도 많다.

치매예방위해선 젊은시절부터 지속적 건강관리해야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치료해야 한다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야 한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심장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아야 한다 △비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지나친 음주는 피해야 한다 △머리를 많이 쓰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우울증은 치료 받고, 많이 웃고 밝게 살아야 한다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있을 때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움말 | 정신과 이민수교수 외래 | 02)920-5505

